

교제와 나눔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각 자치단체는 11월 중에 총회로 모여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바이블12 금주 휴강합니다.
- 취임식: Pfarrer Cornelius Brühn(양주연 교우 남편)

11월 9일 11시, Dietrich-Bonhoeffer-Kirche, Einsteinstr. 194, Neuss

- 별세:** 박두규 집사(박종희 권사 부친, 10월 27일 95세)
- 귀가:** 김종권-유근임
- 생일축하:** 이미전, 김영희, 오경민, 크리스티안 쉬빌라
- 담임목사:** 유럽예수교장로회 총회 및 목회자수련회 참석(11월 3일-7일 시칠리)

◆ 말씀일기 일정

일/스2:1-70	월/스3:1-13	화/스4:1-10	수/스4:11-24
목/스5:1-17	금/스6:1-12	토/스6:13-22	일/스7:1-10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54독

◆ 예배위원 안내 ◆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6일	11월 23일
예배기도	서영지	서정인	김한진	박성희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장혜진 백윤정			
애찬위원	밥상 셋	밥상 넷	밥상 다섯	밥상 여섯

42-44호

2025년 11월 2일



Presbyterianische
Missionsgemeinde
Düsseldorf e.V.

“네 자신을 연단하라”(딤전 4:7)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소망방



1983년 5월 8일 창립

담임/ 손교훈 목사 Pasto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5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24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301장	다 함 께
기도/Gebet	서영지 집사
찬양/Chor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실 버 찬 양 단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에스라 2:1-70	인 도 자
설교/Predigt	돌아가리라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104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조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역대하36:1-23 '열국의 하나님' ◀

주권 없는 나라의 비참함. 주변 강대국 애굽에 휘둘리고, 바벨론에 흔들리고 끌려가고. 그렇게 유다는 막을 내리고....불쌍하다.

희망을 접어야 할 것 같은데, 강대국 바벨론도 신흥 강국 바사(페르시아)에게 굴복한다. 바사 왕 고레스도 하나님 손에 있다. 다시 예루살렘에 새 역사가 시작된다.

오늘날에도 중동지역의 위기는 끊이질 않는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갈등이 심하다. 그리고, 늘 팔레스타인 쪽에 피해가 더욱 크다. 이런 현실을 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신다는 생각보다는 가자 지구의 어린 아기를 비롯한 처참한 민간인 사망 사고에 가슴이 아프다. 연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있다고 생각되기 보다는, 이제는 강해져 베린 이스라엘이 막후에서 강대국조차도 주물럭거리며 힘 없는 가자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가슴이 콕 막힌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아니시라는 것이다. 유다 왕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고,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아시며 또한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아시고, 우리 조국의 하나님아시며, 모든 나라의 하나님아시다.

우리의 신앙이 폭력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모양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십자가에 달리실 수 밖에 없으셨던가! 전쟁이 속히 막을 내리고, 평화와 공존, 재건의 길로 나아가기를 또 다시 기도한다.

▶ 지난 주 봉헌 내역(10월 26일-11월 1일)◀

십일조	감사 및 목적현금
권순아, 미노쉬빌라, 두리쉬빌라, 한상철, 김한진, 윤영숙	무명, 김성희(장학)
총액 823,22유로 = 723,22(예배당) + 100,00(온라인)	